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사 아래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기사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미국 경제]

- Bloomberg: 2월 미 민간 고용 증가세 크게 감소...7만 7천 개
- YahooFinance: 미 제조 주문 반등...상업용 항공기 주문 주도

#### [미국 금융]

- YahooFinance: 투자자들, 연준 금리 인하 베팅 커졌다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어제 화요일, 트럼프 의회 연설의 핵심 내용
- CNNBusiness: 트럼프 5백27억 달러 반도체 지원법 철폐 추진

#### [관세 전쟁]

- JP 모건: 미·중 관세 정책의 예상과 진단
- Bloomberg: 연방 상무장관, “트럼프의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중에 자동 차 등 완화 조치 있을 것”

#### [물류]

- WSJ: 트럼프, 미 선박 건조 능력 강화 행정명령 추진

#### [주택]

- Bloomberg: 미 모기지 금리 3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 [글로벌 경제]

- WSJ: 중국, 2025년 성장률 목표치 약 5%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아디다스, 나이키 부진 속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
- Bloomberg: 삼성,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설립 고려 중
- WSJ: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인공지능 도입

#### [보고서]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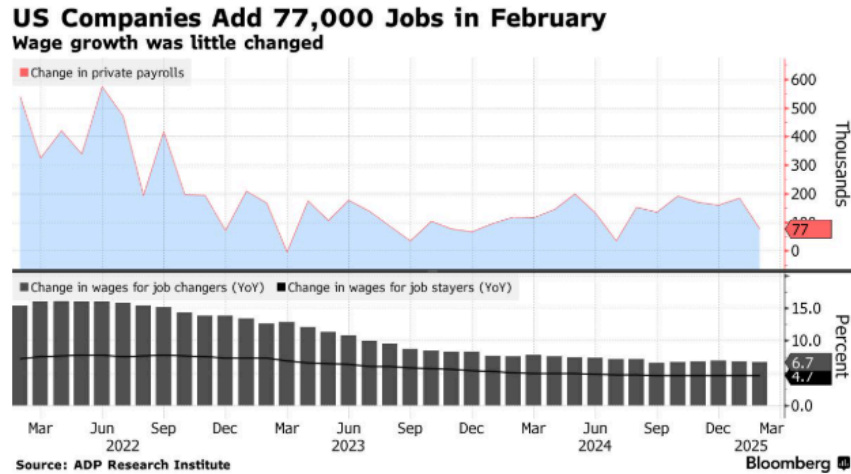
#### [미국 경제]

#### **Bloomberg: US Firms Add 77,000 Jobs, Smallest Gain Since July, in ADP Data**

#### **2월 미 민간 고용 증가세 크게 감소...7만 7천 개**

- 미 기업들의 2월 고용 증가세가 지난해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특히 서비스 분야와 올겨울 한파가 닥친 지역에서 두드러졌다.

- ADP Research에 따르면, 미 민간기업 일자리는 1월에 조정치로 18만 6천 개에서 2월에 7만 7천 개로 크게 줄었다.
- 노동시장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연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연방정부 및 기업들의 감원도 증가하는 추세다.



Bloomberg 기사

### YahooFinance: US factory orders rebound in January on commercial aircraft

#### 미 제조 주문 반등... 상업용 항공기 주문 주도

- 1월 미 제조 품목 신규 주문이 반등했으며, 상업용 항공기 주문이 크게 늘었다. 그러나 전반적인 제조 분야의 회복은 수입 관세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연방 상무부 센서스국의 수요일 발표에 따르면, 12월 공장 주문은 0.6% 감소했으나, 1월에는 1.7% 증가하며 당초 예상치(1.6%)를 상회했다. 민간 항공기 주문은 12월 28.9% 급감한 후 1월 93.9% 급등했다.
- 1월 공장 주문은 연간 기준 3.5% 증가했다. 제조업은 미국 경제의 10.3%를 차지하며, 지난 2022, 2023년 연준의 금리 인상 여파로 타격을 입은 후 일시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 그러나 트럼프의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대한 최근 관세 조치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미 제조업체들의 비용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다.

YahooFinance 기사

### [미국 금융]

### YahooFinance: Investors aren't cheering for Fed rate cuts anymore 투자자들, 연준 금리 인하 베팅 커졌다

- 트럼프의 관세 시행에 따른 제조업 활동 둔화 등 저조한 경제 지표들이 미 경제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면서, 시장은 연준의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
- 어제 화요일, 트레이더들은 올해 처음으로 연준이 3차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점에 베팅했으며, 다음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논쟁도 심화되었다.
- CME FedWatch에 따르면, 트레이더들은 오는 5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50%로 전망하고 있으며, 일주일 전만 해도 연준의 금리 동결 가능성을 75%로 예상했었다.
- 차입 비용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체와 소비자에게 긍정적인 소식이지만 최근 증시는 부진한 흐름을 보이며 트럼프 당선 이후 상승분을 모두 반납한 상태다.

YahooFinance 기사

### [트럼프 행정부]

#### **Bloomberg: Tariff Defense, Democrats Protest: Takeaways From Trump's Speech**

##### 어제 화요일, 트럼프 의회 연설의 핵심 내용

- 트럼프는 관세 수입이 미국을 다시 강하고 위대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반도체 과학법(CHIPS Act) 과 관련해, 520억 달러 규모의 양당 합의 법안을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이에 따라 일부 보조금 지급이 불확실해졌다. 또한 국경 안보 자원 지원을 의회에 요청했다.
- 감세 정책과 관련해, 팁 수입과 초과 근무 수당, 사회보장 혜택에 대한 면세를 주장했다.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이자 지급을 세금 공제 대상으로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Bloomberg 기사

#### **CNNBusiness: Trump wants to kill \$52.7 billion semiconductor chips subsidy law**

##### 트럼프 5백27억 달러 반도체 지원법 철폐 추진

- 트럼프는 어제 화요일 의회 연설에서 5백27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제조 관련 지원법 철폐를 촉구했다.
- 그는 “반도체 지원법은 문제가 많다. 수천억 달러를 투입하는 데 실질적 효과가 없다. 혜택을 받은 주체들은 목적에 맞게 돈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폐지하고, 이를 부채 감축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연방 상무부는 이와 관련하여 삼성전자에 47억 달러, 인텔에 78억 달러, TSMC에 66억 달러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다.

## [관세 전쟁]

### JP 모건: Miami Heat: Temperature Rising, Higher Tariffs Now a Reality 미·중 관세 정책의 예상과 진단

- 트럼프의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은 관세를 제도화하고, 미·중 전략 갈등을 완화하기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 트럼프 행정부 내에 대중국 정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은 없지만, 트럼프는 협상과 거래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 현재 미·중 간 대규모 협상은 없지만, 양측간 갈등 악화를 피하려는 의지는 존재하며, 악화하는 시나리오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것이다.
- 중국이 높은 관세를 피할 수는 없지만 관세 전쟁으로 치닫는 것만으로 보이지 않고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다.
- 다만, 중국이 마라라고에서 협상에 참여할 가능성은 낮으며, 보복 조치는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할 수 있다. 닉슨 시대에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변화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도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재설정해 중국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악화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이번 JP 모건 컨퍼런스 발표자들은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간에 '혼란의 축'이 구체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 중국은 남미에 채찍 대신 당근을 제공하면서 비용 구조를 낮추고 지역 투자를 늘릴 것이다.
- 전 세계를 중국과 차단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 JP 모건 기사

### Bloomberg: Trump to Decide on Canada, Mexico Relief Today, Lutnick Says

#### 연방 상무장관, "트럼프의 캐나다 멕시코 25% 관세 중에 자동차 등 완화 조치 있을 것"

- Howard Lutnick 연방 상무장관은 "이번 주 월요일 트럼프가 조치한 멕시코와 캐나다에 부과한 25% 관세 중에서 자동차와 일부 분야들에 구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마디로 품목 중에 25%가 계속 부과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품목도 있게 된다는 것이다.
- 그는 이번 관세 조치는 펜타닐 유입 제한과 연관이 있으며, 현재 일부 품목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지만, 4월 2일 발표될 광범위한 관세 조치에 다시 포함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물류]

**WSJ: Trump Administration Readies Order to Bolster U.S. Shipbuilders, Punish China**

**트럼프, 미 선박 건조 능력 강화 행정명령 추진**

- 트럼프는 미국의 선박 건조 등 역량을 회복하고, 중국의 글로벌 해양산업의 주도권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다.
- 이 행정명령에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 제조 선박이나 크레인에 입항료를 부과해 수입을 늘리고 국내 해양산업 강화를 위해 백악관 국가안보위원회에 관련 부서를 신설하는 등 18개 항목이 포함됐다.
- 또한 행정명령에는 핵잠수함 근로자 임금 인상,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연방 정부효율부에 정보 조달 절차 검토, 특히 해군 조달 절차를 검토하라는 지시 등이 추가됐다.

[주택]

**Bloomberg: US Mortgage Rates Near Three-Month Low in Boost to Demand**

**미 모기지 금리 3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 미 30년 만기 모기지 금리가 2월 마지막 주 6.73%로 15bp 하락하며 약 3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해 주택 시장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였다.
- 금리 하락으로 모기지 대출 활동이 증가했으며, 채용자 신청 지수는 37% 급등해 지난해 10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주택 구매 신청 지수도 9% 이상 상승했다.
- 모기지 금리 하락은 최근 경제 지표 부진과 주식 시장 매도로 인한 안전자산 선호로 미 국채 수익률이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제]

**WSJ: China Sets 2025 Growth Target at About 5% Despite Looming Trade Tensions**

**중국, 2025년 성장률 목표치 약 5%**

- 중국은 무역 긴장, 내수 부진,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5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지난해와 동일한 약 5%로 설정했다.

- 중국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적자 목표를 GDP의 4.0%로 상향(전년 3.0%)했다. 또한, 4조 4천억 위안(약 6천56억 달러) 규모의 특수 목적 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 중국 정부는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를 2.0%로 설정, 지난해 목표(3.0%)보다 낮췄는데, 이는 2003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2024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대비 0.2%에 그쳤다.

WSJ 기사

### [비즈니스와 기업 동향]

#### **WSJ: Adidas Aims to Increase Sales, Win Market Share Amid Nike's Struggles**

##### **아디다스, 나이키 부진 속 시장 점유율 확대 목표**

- 아디다스는 2025년 높은 한 자릿수 매출 성장을 예상하며, 운영 이익을 17~18억 유로로 전망했다. 북미와 중국 등 주요 시장에서 4분기 매출이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히며 점유율 확대를 노린다.
- CEO Bjorn Gulden은 미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언급하며 보수적 입장임을 드러냈다. 아디다스는 개편의 일환으로 소비자 중심 전략 강화를 위해 독일 본사 의사결정 권한을 축소하고 최대 500개 직무를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WSJ 기사

#### **Bloomberg: Samsung Mulls US Battery Plant Despite Trump Anti-EV Stance**

##### **삼성, 미국 내 배터리 공장 설립 고려 중**

- 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철회에도 불구하고 삼성SDI는 중장기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북미에 제조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 삼성SDI 최주선 대표는 올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성장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배터리 원자재 공급업체도 같은 견해를 보였다. 포스코퓨처엠의 엄기천 대표는 2년 내 시장 반등 가능성을 전망하며 생산 확대에 나서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업계가 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방향(Free from China)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 LG에너지솔루션 김동명 CEO는 미국의 정책이 제조업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존 미국 내 투자 시설이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Bloomberg 기사

## WSJ: McDonald's Gives Its Restaurants an AI Makeover 맥도날드, 레스토랑에 인공지능 도입

- 맥도날드는 전 세계 4만 3천 개 매장에 AI 및 첨단 기술을 도입하는 디지털 혁신을 추진 중이다. 인터넷 연결 주방 장비, AI 기반 드라이브스루, 관리 자동 AI 도구 등을 도입해 주문 정확도를 높이고 장비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맥도날드는 구글 클라우드 기반의 엣지 컴퓨팅을 도입해 매장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주방 장비의 고장 예측, AI 음성 주문 시스템, 주문 정확성 검증 기술 등을 적용할 계획이다.
- 맥도날드는 AI를 활용해 고객의 구매 이력과 날씨 데이터를 연계한 맞춤형 프로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무더운 날씨에 간식을 선호하는 고객에게 앱을 통해 할인된 가격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객 충성도를 높일 방침이다.

WSJ 기사

### [보고서]

## '안전벨트 매라' '본 적 없는 수준'...월가도 덮친 관세 공포 JP모건 증시 전망 '부정적'으로 바뀌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본격화되면서 미국 주식시장에도 암울한 전망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월가에서는 이런 수준의 관세는 본 적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시장이 크게 출렁일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기업 칼라일 그룹의 하비 슈워츠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뉴욕에서 열린 블룸버그 인베스트 콘퍼런스에 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시장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안전벨트를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Suite 410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